

경기도회 김석환 회장

열린 행정으로 투명한 협회, 책임과 열정을 다하는 경기도회



전국 시·도회는 지난 해 개최된 총회를 통해 제9대 시·도회장을 새롭게 구성하고 각 지역에서 설비건설 업계 및 협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도회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듣는 코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김석환 경기도회 회장[영동건설(주) 대표]으로부터 경기도회의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을 들었다. 열린 행정으로 1천여 회원사와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김석환 회장은 제8대에 이어 제9대까지 연임 중이다. 김석환 회장은 경기지역의 방대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회원사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회 최초로 권역별 협의회를 구성, 일반회원사와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다. [편집자 주]

제8대에 이어 제9대까지 재임되었습니다.**재임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둘러싸고 있으며 한강을 끼고 비옥한 평야가 발달해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정착했던 땅입니다. 그러나 지역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회원사들 간 화합이 힘든 여건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8대 회장 출마 당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원 간 소통 창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각 지역에 드문드문 분포해 있는 회원사의 특성을 아우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권역별로 소규모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8대 집행부가 출범한 후 제일 먼저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문제는 항상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습니다. 특히 회원사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회원사를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사를 자주 만나서 회원사의 요구사항이 뭔지 듣고 회원사 입장에서 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협회 운영을 숨김없이 공개적으로 오픈하여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열린행정을 하다 보니, 회원사의 신뢰 구축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뢰 속에서 회원사의 만장일치에 의해 제9대 회장에 연임되어 개인적인 보람은 물론 더욱 막중한 책임감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앞으로 회원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회원사와 소통하면서 회원사가 좀더 좋은 경영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회의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기도는 연간 건설공사 발주금액이 약 31조 원이며, 전국 GDP의 33%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중심 지역입니다. 또한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및 재개발 구역도 다양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벗어나 경기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많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 도회는 전국 시·도회 중에서 가장 많은 회원사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회는 1,030여 회원사가 좀더 나은 수주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정착

먼저,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분리발주·주계약자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기계설비 분리발주 규정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건의를 한 결과 지난 해 말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제7대 집행부 때 본회 이사를 역임하며 강석대 회장님과 함께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 법안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조례에도 기계설비 분리발주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교육청의 기계설비 분리발주 확대 및 정착과 경기도 및 시·군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도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건설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우리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매우 고무적인 제도이므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를 위해 관내 발주기관에 적극적인 홍보 및 건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적정공사비 확보 및 기술인력 양성

경기지역 공사물량은 이전에 비해 조금씩 늘고 있으나 마진폭은 갈수록 줄고 있어서 회원사는 기업운영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회는 공사원가 하락 요인이 되는 표준품셈 삭감, 실적공사비 및 관급자재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가낙찰을 야기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각 발주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불공정하도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대 때부터 경기도 내 기관 및 관련단체장 회의기구인 '기우회'에 가입하여 경기도 발전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기계설비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우리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주재로 매월 열리는 이 회의를 통해 우리 도회는 경기도 내의 주요 단체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계설비업계의 위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인력유입 저하에 따라 우리 도회는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제도를 통해 많은 기계설비 기능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기계설비 관련 6개 대학과 산학협력협동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20명 이상의 우수 학생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향후 기계설비건설업계를 리드하는 핵심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학협력대학과의 위탁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 기계설비건설업계의 미래를 짊어질 설비기술인력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회원사 화합과 정보의 장 마련

경기도는 매우 넓은 지역에 회원사 또한 각 지

역에 흩어져 있어서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8대 회장에 취임한 2011년부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묶어서 각 권역별로 매년 4회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각 권역별 정기모임에 참석함으로써 회원사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간담회를 통해 협회의 각종 사업추진 현황을 일반 회원사에게 보고함은 물론이고 회원사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음으로써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가는 협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단합을 도모하고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회원사로부터 매우 사랑받는 협의체이기에 우리 도회는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계설비 이미지 향상 홍보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경기도회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는 기계설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회적인 책무이므로 '3사랑밥터' 등 봉사단체를 비롯하여 지역 내 소외되고 방치된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회는 협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적극 발굴하여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기계설비인의 위상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회원사에 당부말씀

건설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기계설비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공사비

에도 못미치는 공사 발주금액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로 많은 회원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경기도회 회원사의 공사실적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올해는 3조원 이상 공사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경기도회가 아닌 질적 성장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경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회원사 모두가 협회를 중심으로 더욱 발전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수익이 보장된 경영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일치된 마음으로 고품질 시공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저가수주 또한 절대로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1천여 회원사께서 보내주신 두터운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화합하는 협회, 열린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투명한 협회, 업역확보와 회원사 권익향상을 위해 책임과 열정을 다하는 협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

김석환 회장은

- 1956년생
- 영동건설(주) 대표이사
-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대한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 운영위원
- 동성남 청년회의소 JC 회장
- 성남시 체육회 이사
- 경기도지사 표창
- 성남시장 표창



회원사 소통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회 사무처 직원들
(왼쪽부터 김순홍 사무처장, 조창근 팀장, 남신영 과장, 장성호 직원)